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 겸 화가,
바움가르텐 잉고

바움가르텐 잉고 교수가 한국을 알게 된 것은 1993년이다. “그때 다니던 학교에서 한국으로 단체 견학을 온 것이 시작이었다. 한 도시 안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한강을 따라 일렬로 도열한 아파트와 그 반대편에 옛 모습을 간직한 주택들이 뿔뿔히 떨어진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도시를 그리는 화가이기도 한 그는 고향인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스, 영국, 일본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에 도래했다. 완전히 서울에 정착한 것은 2008년부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로 임명되고부터다. “도쿄에서 공부할 때, 한국인인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이 힘써줬다.” 그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선택한 지역은 바로 마포구 서교동. “직장과 가장 인접한 곳을 택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며 지난 몇 년 동안 상수, 합정, 망원 그리고 아현까지 주변 지역의 크고 작은 변화를 세심히 관찰했다. 오랜된 동네들 중 많은 곳이 철거되고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되면서 내가 좋아하던 식당과 카페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관찰과 발견에서 오는 기쁨을 알기에, 일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지나치기 십상인 주택, 모퉁이와 계단, 창문이 그의 작품의 주 소재다. “서울은 새로운 발견의 기회를 수없이 마주할 수 있는 곳이다. 역동적으로 움직

이는 이 도시를 보고 있노라면 수많은 영감이 떠오른다.” 약 15년 동안 서울에 거주한 만큼 독일의 가족과 친구들도 몇 차례 서울을 방문했다고. 그들이 꼽은 인상적인 장소는 동대문과 종로다. “코엑스와 같은 현대적인 쇼핑몰과 다르게 동대문, 종로는 전통적이면서도 서울 특유의 문화를 품고 있다. 그렇기에 더 독특하고 인상적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서울 도심 속에 거주하고, 도시를 그려내는 그가 서울을 즐기는 방법은 바로 도시의 산을 걷는 것. 그중에서도 인왕산을 즐겨 찾는다. “인왕산 정상에 오르면 서울의 도심이 한눈에 보인다. 종로구부터 서대문구까지 아우르는 풍경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준다. 등산 후 마일로 내려가면 다양한 종류의 카페, 레스토랑, 상점이 준비해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서울을 단 한마디로 정의해달라는 물음에 그는 바로 “역동적Dynamic”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서울은 그 어떤 곳보다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곳이다. 때때로 너무 빠른 속도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안정적으로 기능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중교통 시스템이 아닐까?” 가끔 서울의 천편일률적인 풍경이 지루해진다면, 그의 그림을 들여다보자. 애정 어린 시선이 깃든 서울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

EDITOR 김송아 PHOTOGRAPHER 이기태



“서울의 분위기는 내게 수많은 영감을 준다.
언제 어디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곳이다.”

I N G O B A U M G A R T E N